

2017 제18회 사회과학대학 에세이 경진대회

[체험활동 수기(교환학생) 부문 - 우수작]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 스웨덴-♥

행정학과 4학년  
김영미

- 목차 -

1. 험난한 출국
2. 오리엔테이션, ‘아, 여기가 정말 스웨덴이구나.’
3. Meeting with local politician and citizen
4. 나 홀로 말뚝여행에서 발견한 스웨덴, 그리고 나
5. Camp fire 그리고 스웨덴의 가을, 행복한 사람들
6. 런던여행, 그곳에서 미래를 그리다
7. LNU pride, 편견에 눈을 뜨다!
8. Lucia event & Friend-family (Feat. GOD JUL)
9.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묵직한 감동들
10. Christmas Eve in Cafe Deluxe, Sweden
11. Interview Swedish politician in Växjö kommun
12.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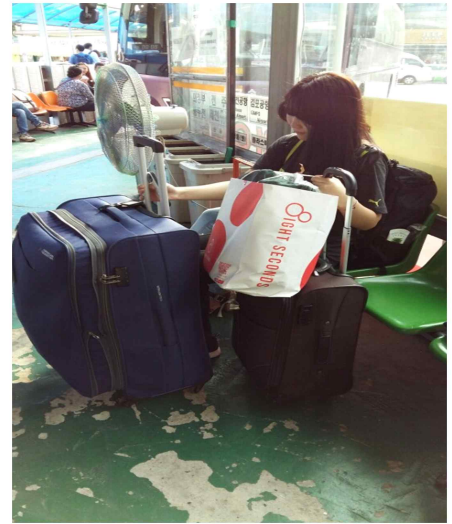
## 1. 험난한 출국

처음으로 모든 것이 혼자인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 잘해낼 수 있다고 난 강하다고 매 순간 여겨왔는데, 막상 정말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오니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이 자꾸 났다. 한두 푼 아닌 돈을 엄마한테 받아오면서 나는 즐거울테지만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야 할까? 미안했다. 그리고 보고싶었다. 내가 더 부지런히 경험하고 즐기고 배워오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일 것이라는 신념으로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 약해지지말자, 하고 다짐했던 나 홀로 첫 출국길이였다.

출국하기 전부터 많은 주변인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던 러시아항공, 결과적으로 내 짐은 모두 안전하게 최종 도착지인 코펜하겐 공항까지 도착하였고, 항공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기내식 또한 특별한 불만 없이 깔끔하고 맛있었다. 모스크바에서 환승했을 때 주었던 샌드위치 또한 차가웠지만 맛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야 학교에서 픽업이 가능했기에 공항에서 노숙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현실은 국제거지가 따로 없었다. 춥고 졸리고 배고팠다.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공항이었지만 나 홀로 여행의 불안감 때문인지, 혹시라도 짐을 잃어버릴까 화장실도 못가고 찢찢했다. 약 9시간의 나 홀로 노숙,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끔찍했다.

다음 날 겨우겨우 올라탄 백훼로 향하는 기차, 모든 것이 혼동되던 순간에 불안해하던 내 모습을 보고 천사처럼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주던 한 스웨디쉬, 알고 보니 내가 가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란다. 덕분에 기나긴 나의 출국길은 안전하게 백훼역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되었다.



## 2. 오리엔테이션, ‘아, 여기가 정말 스웨덴이구나.’

개강 전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걸어서 학교에 가보기로 했다. 여유롭게 나온 나였지만 1시간이나 걸렸다.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등교 길에 낮을 잃어서일까,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자연의 도시인 백훼의 풍경은 예술이다. 이러한 곳이 나의 등교 길이 된다니, 그것도 자전거와 함께, I can't EVEN imagine.

사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OT 내내 내 눈을 사로잡았던 광경이 있었다. 바로 청각장애인인 교환학생 학생을 위해서 긴 OT시간동안 2인 1조로 수화를 통해 그들에게 내용 전체를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었다. 아, 이게 복지국가 스웨덴일까? 대한민국의 살면서는 어떠한 설명회, OT, 강의를 들으러가서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에 가슴 떨리는 감동을 경험했다.

‘아 맞다, 여기가 정말 스웨덴이구나.’



그리고 저녁, 중고물품으로 받은 자전거를 꺼내두고 기숙사 앞 호수 한 바퀴를 돌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사진으로 담기지 않는 풍경이 원망스러울 뿐이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번 자전거에서 내리게 한 호수 풍경은 최고였다.

자연의 도시인 곳에서 생활해서 그런 것인지, 멋진 풍경들과 함께하는 내 모습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자랑스럽기도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생생하게 이 자연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리고 얼른 31일이 되어 개강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더 Great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 더 재밌는 생활이 되기를 기대한다.

### 3. Meeting with local politician and citizen

오늘은 Swedish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Friend family 담당자에서 온 메일 중에 local people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그 중 정말 가고 싶었던 local meeting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미팅은 바로 'Meeting between local citizens and politician'였다.

스웨덴에 오기 전부터 스웨덴의 정치가 부러웠고 궁금했고 경험해보고 싶었다. 비록 미팅이 내내 스웨덴어로 진행될 예정이고 Vaxjo Kommun politician들이 일방적으로 Vaxjo의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보고해주는 형식이기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담당자는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참여하는 것에 반대했지만, 스웨덴 정치인들을 보고 그들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어떠한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큰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꼭 가고싶다고 여쭈었다.

미팅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느낀 점은 '와 진짜 많이들 왔다.'였다.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았고, 특히 유모차에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도 있었다. 각 주제별로 각각 다른 코문 집행위원들이 백혜의 현황을 설명해주었다. 백혜의 자연, 출생률, 난민 유입률, 범죄율, 대중교통, 주거 등 여러 다양한 주제가 있었다. 정말 궁금한 주제들이 많았는데 스웨덴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탄스러웠다. 하지만 범죄율에 있어서는 정말 현저히 낮은 도시임을 몇몇 그래프와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감사했다.

보고회를 마친 후 Fika time, 스웨덴의 대표문화인 Fika는 언제나 즐겁다. 그냥 간식을 먹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정말 색다르다. 너무 맛있었던 샌드위치와 함께 스웨덴 할아버지께서 감사하게도 말을 걸어주셔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많은 유럽인들과 일을 할 기회가 있어 영어에 많이 노출될 기회가 많았다고 하셨다. 정말 연세가 믿기지 않는 영어실력이셨다.

비록 Friend family를 얻는데는 별 수확이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스웨덴의 정치문화를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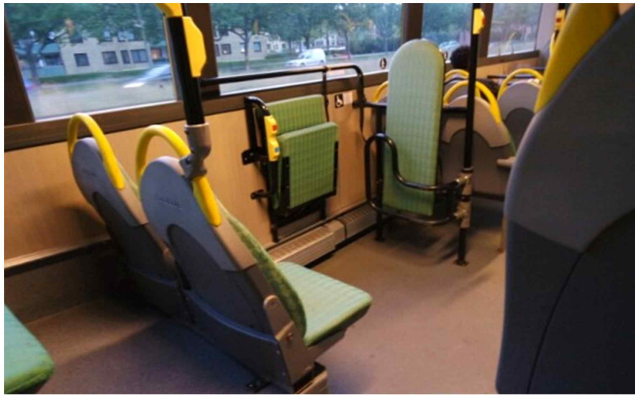
힘으로 보고 배운 것 같아 정말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나에게게는.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지역 정치인들의 현안 보고들을 한 명 한 명 정말 집중해서 경청해주는 주민들 모습에 이렇게 주민들이 지역에 관심이 있으면, 정치인들이 정말 시민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스웨덴 특유의 합의문화가 이런 경청의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었겠구나 싶었다.

#### 4. 나 홀로 말뚝여행에서 발견한 스웨덴, 그리고 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백훤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역으로 가는 버스 안, 꽤 커다란 유모차와 함께 탄 어느 아빠의 모습이 새삼 내겐 신기했다. 스웨덴의 시내버스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또 한 번의 순간이었다. 스웨덴은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것이 정말 너무 당연한 나라다. 또한 유모차를 끌고 버스에 타는 것이 정말 쉽다. 이렇게 버스 좌석 중간 중간에 빈 공간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부모는 좌석에 앉고 그 앞의 빈 공간에 유모차를 세워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사실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는 버스를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서 있을 공간마저 부족해 제 기능을 못하겠지만, 왜 스웨덴 이 나라 사람들이 육아에 불편함을



덜 느끼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여행이었다. 스웨덴 곳곳에는 스웨덴이 묻어있었다.

스웨덴에서의 첫 여행이자, 스웨덴에서의 첫 나 홀로 여행. 스웨덴에 와서 여태까지는 혼자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말뚝 여행을 통해 혼자 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소중한 것 같고 또한 진짜 취미가 생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 누군가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항상 "노래 듣는거요, 노래 부르는거요, 책 읽는거요, 신문 보는거요." 라는 누구나 좋아하는 것들을 말했다. 사실 정말 내 시간이 생기면 꼭 하고 싶은 진짜 취미가 없었던 것 같았다. 이번 말뚝여행을 통해 얻은 것은,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혼자 여행 다니는거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남겼다는 것이다.

정답은 교환학생 생활이 모두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 있을 때쯤 알 수 있겠지만 말이다.

#### 5. Camp fire 그리고 스웨덴의 가을, 행복한 사람들

오늘은 Interculture salon 친구들과 Camp fire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교환학생 생활에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도전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었고,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 할,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부딪쳐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

시는 못해볼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공부보다도 우선순위에 있었다. 그래서 월요일에 당장 Swedish exam이 있고, 화요일 정오까지 제출해야할 과제가 있지만 과감히 Thomas가 제안한 Camp fire에 가기로 했다. Yay!!!! 말만 들어도 어썸하다. 스웨덴에서 외국인 친구들과의 캠프파이어라니, 마시멜로랑 소세지를 가져와서 구워먹자니, 상상만으로도 좋았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쯤이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혼자 타고오긴 무서울 것 같아 자전거를 두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갈까 싶었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출발했다. 그런데 호수를 진입하자마자 지역 주민들이 마라톤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形形色색의 운동복을 입고 남녀노소 불문하고(특히 노인 참가자들이 많아서 아주 놀랐다.) 숨을 헐떡이며 뛰고 있는 모습에 대단하단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스웨덴은 진짜 가을이 찾아온 것일까? 예쁜 단풍이 백훼호수 주변도 물들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눈으로 보고 있다니, 그야말로 황홀했다. 예쁜 단풍에 취하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내 자전거를 멈추게 한 것은 단지 예쁜 풍경을 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다. 바로, 한 아주머니의 행동이 내 눈과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냄비와 주걱을 들고 경쾌한 소리를 만들며 누군가를 응원하는 소리를 외쳐댔다. 처음엔 냄비와 주걱을 든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자전거에서 내렸고, 그 응원이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함이 아닌 마라톤 참가자 모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원임을 알아차리고선 잠시 이 광경을 지켜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 내 맞은편에 있던 아버지와 아들 둘의 행동은 '아, 나도 스웨덴에서 정말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새겨준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가만히 서서 누군가 특정인을 응원하듯이 박수를 치며 힘내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어린 아이들마저도 박수를 치고 있었다. 누구일까? 그들의 엄마가 참가자로 뛰고 있는 것일까? 1분여동안 세 부자와 냄비를 든 아주머니의 행동을 살펴보며 알게 된 것은, 그들은 특정인을 응원하는 것이 아닌, 마라톤에 참가해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두를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쟁하는 사회가 아닌,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회, '이 나라에서라면 무슨 일을 하고 살아도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스웨덴으로 아예 이민을 오고 싶을 정도로 그들의 문화가 아름다워 마음이 찡긋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나라, 그 안에서 물들고 있는 너무 부러운 단풍들.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탔던 자전거, 새로운 광경과 깨달음, 역시 자전거 타길 잘했어! 라며 내 자신을 토닥여주고 캠프파이어 장소로 향했다. 너무 어두워서 친구들 얼굴이 하나도 안보이던 찰나에 장작들에 불이 화르르륵 붙으면서 주변이 환해졌다. 스웨덴 이곳에서 만난 여러 국가의 새로운 그리고 고마운 친구들의 얼굴이 비춰, 찰칵 사진을 찍었다. 소세지와 마시멜로를 꽃을 스틱이나 포크가 있냐고 친구들에게 묻자, 친구들은 여기 널린 게 스틱이라고 여기에 꽃으라며 주위에 흩어져있는 나뭇가지를 건내주었다. 솔직히 처음엔 굉장히 찝찝했는데, 이곳에서 아니면 언제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 마시멜로를 구워먹겠는가? 스웨덴은 자연의 나라니까 모든 게 깨끗해! 라는 위로 덕분에 과감히 나뭇가지를 이용해 소세지와 마시멜로를 구웠다. 그리고 그 결과, 맛은?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와 마시멜로를 먹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먹은 그것들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별 주제도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와 와인도 나눠 마시고, 내가 여행을 갈 나라들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행계획도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생각보다 춥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더 행복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평소보다 빨리 취기가 오

르는 것 같았다.

생각해보면 이곳에 와서 느낀 행복은 너무나도 소소한 일상에서 찾아왔다. 한국에서도 그랬을까? 아니면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너무 사소했기에?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고, 나에게 대한 편견 하나 없는 그들이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 모습을 좋아해주고, 그 안에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사실 언어가 아주 완벽하게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수도 있겠다. 다툼만한 주제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과 추억들이 늘어갈 때 마다, 정말 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복한 마음이 퍼져나간다.

오늘도 고마워,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살고 싶다고 느끼게 해준 스웨덴의 모든 것들아, 이 기억, 감정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 6. 런던여행, 그곳에서 미래를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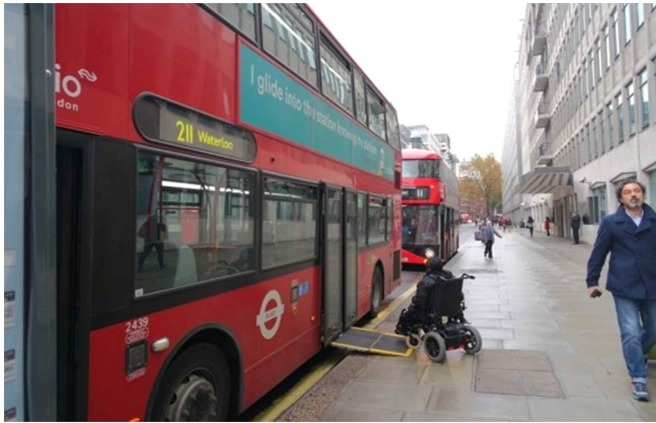
웨스터민스터역에서 내려 또 한참을 얼굴도 잘 모르는 일일동행들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다. 희미하게 와이파이가 터지던 NERO CAFE 앞이 그나마 끝내 동행들을 만나게 해준 고마운 장소였다. 함께했던 동행은 두 명이였다. 한 언니는 휴학을 하고, 약 두 달 동안 나 홀로 유럽여행을 한다고 했고 런던이 첫 번째 여행지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오빠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가 수능을 다시보고 의대에 가서 현재는 의대에서 공부중인 학생이라고 했다. 사실 별 기대조차 하지 않고 갔던 만남이었다. 홀로 유럽여행이 나에게도 처음이었기에, 첫날 그 두려움과 낯설음을 극복하고자 첫날 동행을 구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함께 맛있는 밥을 먹고 예쁜 야경을 보며 기분 좋게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가장 좋았던 순간은 아니었다. 가장 좋았던 순간은 나를 뒤돌아보게 해준 시간들이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언니 오빠들이라는 것이 이야기를 하며 느껴졌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언니 오빠의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무얼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 언니 오빠들만큼 노력은 했을까? 싶었다. 그랬다. 그 순간, 그런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었던 첫날밤의 기억이 지금 되돌아보니 런던여행에서의 꽤 큰 수확이 아니었나 싶다.

프랑스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과 친구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공감했던 것 중 하나, 사회과학도여서 그런지 여행을 다니면 그 나라 사람들과 사회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 정말 10000% 공감됐다. 여행을 하면서 이상하다 싶을 만큼 그 나라 사람들에 집중하고, 시설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보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런던에서 2층버스를 처음 탈 때, '우리나라도 광역버스 출퇴근 혼잡해서 2층버스를 시범도입 하겠다고 하던데, 과연 우리나라에 이 2층버스가 들어오면 런던처럼 잘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며 버스 내부 구석구석을 살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던 중 보게 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나라에선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이었다.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인 것을 떠나, 그 버스를 실제로 아주 간편하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에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영국이 왜 선진국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실제로 버스 내부에서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엄마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 (스톡홀름 여행, 그리고 백훅에서의 일상에서도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모습을 아주 많이 본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니

까. 그들도 그 나라 시민으로서 대중교통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아야 마땅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버스를 이용한다고 비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저상버스가 타고 내리기도 편하고 내부도 넓어서 더 좋다.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정책들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다. 변화될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데이티켓을 5파운드에 선착순 16명에게만 판매한다는 '마틸다'라는 뮤지컬 표를 예매하기 위해 극장 앞에서 기다렸다. 10시 오픈이었는데 9시 20분에 도착했고 다행이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큰 기대 없이 봤던 마틸다. 뮤지컬에 별 흥미가 없었지만 런던에 왔으니 한번은 봐야한다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다. 하지만, 뮤지컬이 끝나고 마지막에 무대 인사를 하기 위해 출연진들이 모두 나와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많은 생각과 함께 눈물이 났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뮤지컬인데다 주인공인 마틸다도 어린 아이이다. 깽해야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주로 나오는데, 뮤지컬을 보는 동안은 그냥 '와 어린데도 진짜 연기 잘하고 노래 잘한다. 우와 대단하다.' 정도의 생각만 들었다.

하지만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온 아이들의 모습은 천상 초등학생 아이들이었다. 너무 해맑은 모습, 본연의 모습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 아이들은 원래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직은 노는 게 더 좋고 부모님 품이 그리울 아이들일 것이다. 그 모습이 무대인사에서 선하게 보였다.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했을 모습들이 스쳐지나갔다. 하고 싶은 것, 또래들이 하는 것들 모두 하진 못하면서 연습했을 텐데,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 그 아이들에게. 그 과정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더 울컥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어린 아이들도 하고자하는 것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하고자하는 것을 위해 저 아이들만큼 노력해본 적이 있었을까? 글로는 답할 수 없는 많은 생각들, 감정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그래서 눈물이 났고, 정말 무언가에 미처서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해준 나에게 정말 큰 자극이 되었던, 5000파운드 이상의 가치였던 뮤지컬이었다.

정말 오래도록 이 감정, 이 생각 모두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고마워 마틸다.

## 7. LNU pride, 편견에 눈을 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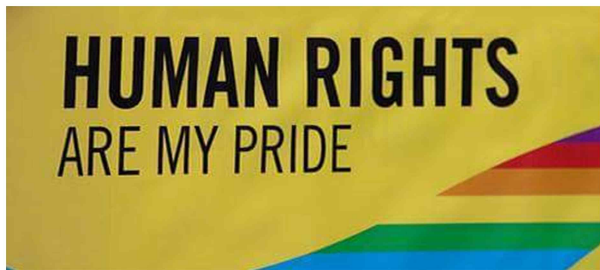
이번 주는 특히 스웨덴 문화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느꼈던 주였다. This week was Vaxjo pride or LNU pride! 한 달 전부터 관련된 이벤트가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올라와서 '이게 뭐



지?’ 속으로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약속도 없고 한가했던 목요일에 교내 엠네스티 단체에서 LNU pride week을 맞아 Norms and values를 주제로 워크숍을 한다가에 재밌을 것 같아 가기로 했다.

가기 전 LNU pride가 도대체 무슨 행사인지 스웨덴 버디에게 물어봤고 스웨덴 버디는 "It's an event that celebrates people as equal, LNU Pride is for everyone, no matter of your sexuality " 라고 답을 해주었다. 그리고 매 년 비슷한 시기에 같은 행사를 한다고 했다. 순간 든 생각, '와, 스웨덴은 그 자체만으로 나를 매 순간 감동시키는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 찰나의 감정이 너무 애뜻하고 예뻐서, 강연이 어떻든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 하던 공부를 접고 워크숍이 있을 강의실로 갔다.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제관련 개념설명을 해주시겠지 했는데, '아 참! 여기 스웨덴이었지!' 다시 한 번 나를 놀라게 해주었던 워크숍, Sexuality에 대해 본인의 생각 혹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아닌, 여러 인물사진들을 나눠주고 그 사람이 어떤 sexuality를 가졌는지 생각해보고 주위 친구들의 사진 속 인물과는 어떤 관계였을지 추측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워크숍을 마치기전 3명씩 1조가 되어 서로의 걸모습만 보고 떠오르는 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다. "You have nice black hair" 이런 식으로 말이다. 나는 같은 조였던 어떤 친구에게 "너 파마했구나, 예쁘다!"라고 했는데, 파마한 게 아니라 원래 곱슬머리라고 답해주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동안 나는 걸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지나치게 많이 판단하고 평가하진 않았을까?

사실 평소 sexuality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스웨덴이라는 평등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는 나라에 와서 새로운 주제,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나라 학생들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스웨덴이라는 나에겐 오래전부터 상상의 나라였던 그곳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을 실제로 행동하는 나라이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닌, 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 표현하고 드러내는 나라. 진정한

평등을 원하는 나라, 알면 알수록 참 배울 것들이 넘쳐나는 사랑스러운 나라.

## 8. Lucia event & Friend-family (Feat. GOD JUL)

12월 9일 수요일, 스웨덴에서의 생활에서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따뜻한 추억을 쌓았다.

오늘은 미국인 친구인 Kay의 Friend-family 식구들과 함께 Lucia event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조금 늦게 공연장에 도착해 아쉽지만 문 옆에 서서 공연을 볼 수밖에 없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본 Lucia 공연, 어린 꼬마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 큰 학생들이 입장을 해서 처음엔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운 마음은 곧바로 내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으로 변했다.

원래 음악을 좋아해서일까, 아이들의 노래를 듣는 내내 '목소리가 악기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반주 하나 없는데도 여러 목소리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닌 예술로 느껴졌다. 노래를 듣는데 정말 처음으로 행복하단 생각이 들었다. 무신론자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천국이란 곳이 존재한다면 그 곳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악기같은 목소리로 루씨아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과 같은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정말 진지하게 말이다. '천사가 있다면 분명 루씨아 공연을 하고 있는 스웨덴 사람들의 전생이었을거야.'

그리고 갑자기 울컥했다.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아니 또르르 떨어졌다고 표현해야 되나?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이렇게 아름답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나 혼자 보고 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 정도였다.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봤다면 어땠을까, 정말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름다운 공연을 보면서 행복해서 눈물이 나왔다.

참 신기했다, 슬퍼서도 억울해서도 아닌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 심장이 뜨거워지다니.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년 하는 루씨아 공연을 매년 또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여유있는 삶이 여태까지 보고 느낀 스웨디쉬들의 겨울나기 모습이 다. 우리나라도 삶에 여유가 있고, 사소한 것에도 기대를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삶이 나아지는 정책을 만들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내가 스웨덴 생

활에서 느낀 것들의 1/10000 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싶었다. 스웨덴에서 내가 느끼는 "스웨덴에서의 살고 싶음"을 말이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진짜 노력해야지. 라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한 잊지 못할 한 겨울밤의 첫 Lucia 공연과의 마주침,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다.

## 9.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묵직한 감동들

12월 18일, 스웨덴식의 예고 없는 묵직한 감동이 가슴 찡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날. 학교가 끝나고 과일과 야채 등이 다 떨어져 장을 보러 Willys에 갔다. 요 며칠 한참 싸게 팔던 오렌지도 가격이 오르고, 바나나도 오르고, 강제 과일단식에 들어갔었던 나에게 바구니를 들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반가웠던 것들은 이 곳 저 곳에서 과일들을 엄청 싸게 팔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큼지막한 판넬들이었다. '오늘이 날이다!!! 무거워도 언제 더 비싸질지 모르니 쌀 때 많이 사가야지!' 라고 기쁜 마음으로 입구 가장 근처에 있던 작은 크기의 사과 매대에 갔

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사과를 담은 투명한 비닐봉지를 투박하게 뜯어, 빨갭게 잘 익었다고 생각된 사과들을 하나 둘 씹고 고르고 있었다. 그 때 내 맞은편에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과를 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다. 맨 처음엔 마트에서 사과를 고르며 행복한 모습으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 참 신기했다. '나처럼 여러 과일들이 세일중이어서 기쁜 마음에 흘러 나오는 노래일까?', '아니면 이것이 스웨덴인들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의 일부를 보여주는 모습인가?' 라는 사소한 생각을 하며 열심히 빨갭게 잘 익은 사과를 찾으려 뒤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스웨덴어로 말을 걸어주시던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할아버지, 내가 자꾸만 사과를 뒤적거리는데 안쓰러우셨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스웨덴어와 함께 사과 하나를 건네주셨다. Sorry?라고 말하기는 민망해, "Tack so micket!" 한마디와 함께 할아버지께서 건네주신 사과를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 모습을 보시더니, 사과 하나를 또 집으시면서 내게 스웨덴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다.

첫 번째 감동, 분명 스웨덴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부분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스웨덴어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은 내가 스웨덴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아무리 이민자 비율이 높고, 평등이 중시되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나를 스웨덴인으로 착각해주는 그들의 편견 없는 시선이 참 존경스러웠다. 사실 나부터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거나(사실 한국인처럼 생겼다는 말 자체도 모순일 수도 있다.) 피부가 검거나, 너무 하얗거나, 누가 봐도 "외국인"으로 느껴지면 영어부터 내뱉는다.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일 테니까, 라는 생각에서 말이다. 그러다 가끔 한국어의 대답을 들을때면 면 참 부끄럽다. 뭘 얼마나 안다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했을까?

그래서 편견 없고 색안경 끼지 않는 이 나라의 문화, 이 나라에 감동받았고, 100%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Gul이란 노란색을 의미하는 단어를 말씀하신걸 보아, 조금씩 노란색을 띄는 사과가 맛있고 좋은 사과라고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Jaha~"를 외치며 할아버지께 또 다른 노르스름한 사과 하나를 받아,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선 "varsogod" 이라고 웃으면서 대답해주시며 사과코너를 지나가셨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요새 미국 친구들도 한, 두 명씩 스웨덴을 떠나고 나도 갈 날이 많이 남지는 않아 예민해진 탓인지 정말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외적인 모습이 어떻든간에 편견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스웨덴 할아버지가 너무 고마웠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정말 행복한 표정과 밝은 톤의 목소리로 좋은 사과를 고르는 법을, 그리고 손수 2개의 맛있는 사과를 골라주신 것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다.

누가 Willys에서 장을 보다가 울컥해봤겠는가, 떠날 때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더 의미 있어 보이는 걸 거야, 마음을 다독이며 이미 충분히 골랐던 사과들이 담긴 봉지에 할아버지의 사과도 담았다.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온기와 편견 없는 시선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었다, 사과에 담아서.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자전거를 주차해놓은 곳으로 나가려는 찰나에 예고 없는 스웨덴식 2차 감동이 또 한 번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두 번째 감동, 어떤 스웨덴 아주머니께서 Willys 입구 앞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 가난한 한 아주머니에게 코인을 건네주시며 빵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을 보았다. 사실 스웨덴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마트든 입구마다 동냥을 하는 분들이 한분씩 계시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다 잘 살 것만 같았던 스웨덴의 현실적인 모습이자,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던 부분이었다. 그만큼 흔한 일하기에 스웨덴 사람들 또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자주 보는 것들에 무뎠어지는 것이 사람이니

간 말이다.

하지만, 빵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스웨덴 아주머니의 손끝에서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다. 0.1초의 순간이었지만 뭐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는지 자전거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을 한 것 같다. 진심으로 약자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돈 뿐만이 아닌 손끝으로 전할 수 있는 더 큰 나눔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이 나에겐 어떤 영화, 다큐멘터리보다도 감동적이고 여운이 깊었다. 스웨덴식의 감동은 참 사소하다.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과서, 책 등에서 배웠던 상식, 사소한 것들에서 오는 감동들이 참 많다. 그러한 상식들이 모여, 실천을 이루고 행동하는 스웨덴이 참 아름답고 부러웠다.

스웨덴, 백혜에서의 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묵직한 감동들은 이제 스웨덴과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 나의 발목을 툭툭 잡는 느낌이다. 가야만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감동의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매일 매일 새로운 감동이 넘치는 나라에서 오늘도 잠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이 여운,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 10. Christmas Eve in Cafe Deluxe, Sweden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했고, 감동적이었던 스웨덴에서의 크리스마스 이브. 23일 저녁,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에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나에게 타이완 친구인 Dream이 시내 카페 Deluxe에서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음식을 12시부터 6시부터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다는데 같이 갈 생각이 없냐는 것이었다.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우리는 시간을 맞춰 만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 산타 모자를 쓴 가족으로 보이는 무리가 신나게 거리를 걷고 있었다. 어디를 가는걸까? 그 모습이 예뻐 보여, 성당을 찍는 척 함께 찍었다. (카페에서 다시 만날 줄 누가 알고 사진을 찍었을까, 그들도 카페를 향하는 길이었다니.)

생각 이상으로 이것저것 정말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차려진 입구, "이건 뭐야? 이거 설마 헤링이야?" 호기심 어린 눈빛 가득,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먼저 한 가득 음식을 퍼왔다. 여러 종류의 햄이 있었고, 미트볼, 소세지, 연어, 헤링, 빵, 크리스마스 샐러드 등 말로만 듣던 스웨덴식 크리스마스 식단이 내 눈앞에 짜잔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다.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가족들에게 눈길이 갔다. 무언가 낯이 익다 싶었더니 카페 앞에서 성당 사진을 찍는 척 사진을 찍었던 산타 모자를 쓴 가족들을 옆 테이블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가족들처럼 가족 단위로 온 분들도, 남자 둘이서 온 분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께서 오신 분들도, 그리고 내 또래의 유학생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 남자 두 분도 있었다. 그들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음식을 무료 나눔하는 어느 개인 카페에 온 가족이 함께 왔다는 것이 참 소박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나라에서의 크리스마스 음식 무료 나눔 행사는 어떤 의미인가? 마치 노숙자나 독거노인, 즉 크리스마스를 홀로 보낼 이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을 주관하면서 언론의 플래시를 받고 형식적인 칭찬을 얻어내는 이미지 마케팅의 한 종류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와는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에서 우리나라와 주관하는' 한 개인 카페의 크리스마스 음식 무료나눔 행사, 그리고 그 곳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불쌍해서, 혼자 보내야 해서, ' 온 것이 아닌, 그 나눔을 기꺼이 함께 나눠주며 2배의 행복으로 주인장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미소들을 지닌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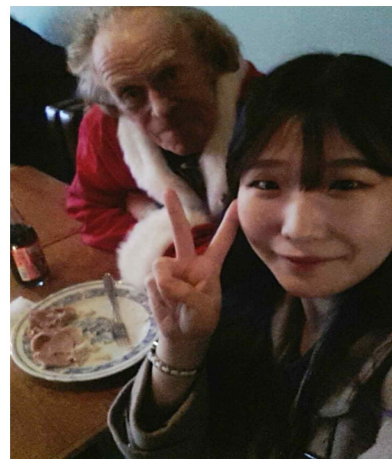
자리를 떠나기 전, Christmas Free meal 이벤트였지만 너무나 감사한 음식들과 진짜 스웨덴의 크리스마스를 느끼게 해준 이 소중한 시간이 너무 고마워 작게나마 20크로나를 도네이션 통에 넣었다. 가난한 유학생이 아닌, 반듯한 직업이 있는 나였다면 100크로나, 아니 1000크로나도 기부하고 싶었던, 음식뿐만이 아닌 크리스마스의 사랑도 얻어간 시간,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제야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한 카페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사람들 한명 한명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음식 사진들을 찍는 나에게, 옆에 박스가 있으니 음식들을 맘껏 싸가라며, 빵과 과자, 초콜렛, 과일까지도 모두 싸가라며 진심 가득한 눈빛으로 챙겨주시던 카페 직원분이 계셨다. 눈이 불편하신 청각장애인 혹은 사시를 앓고 계시는 분 같으셨다. 우리나라였으면 어땠을까,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때의 감정. 그렇게 쿠키와 크리스마스 빵,

초콜렛을 잔뜩 박스에 담고 처음에 카페에 들어왔을 때부터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했던 산타복장을 하신 할아버지께 조심스레 다가갔다. 돔테! 돔테! 스웨덴어로 산타할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인데, 돔테! 만 연신 외치며 사진을 함께 찍어 달라 부탁을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부끄러우신지, 카메라를 보지 않으셨고, 할머니께서는 티타 포!를 외치시며, 화면을 쳐다보라는 사인을 주셨다. 그렇게 찍은 사진 속 돔테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저 깊은 주름 안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할까.

사진을 찍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웃으며 Tack!!! God jul! 을 두, 세 번 되풀어하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카페 입구 쪽으로 다시 향하였다 입구 쪽에서 다시 본 돔테 할아버지는 참 흥이 넘치셨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스웨디쉬로 부르시면서, 한껏 행복바이러스를 카페에 퍼트리고 계셨다. 카페 주인장분과 연관된 분이신지, 정말 개인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자 의상까지 입고 이곳에 찾아오신 건지, 알 수는 없었으나, 음식을 먹고 나가는 스웨덴 사람들은 하나같이 돔테 할아버지께 Tack! 이라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즐기던 그 돔테 할아버지의 눈빛과 목소리, 노래, 얼굴 모두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다. 자꾸만 빼꼼 쳐다보았다. 마치 짝사랑하는 누군가를 훑쳐보는 것 같이.



그렇게 카페 입구로 힘겹게 발을 뺐는데, 입구에서 발견한 중고물품들로 추정되는 박스 안의 물건들! 보아하니, 크리스마스를 겸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내놓아, 필요한 이들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진열해놓은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을 그 나눔의 마음 하나하나가 정말 따뜻했다. 사실 식사 중, 옆 테이블에 앉았던 아침에 성당 앞에서 만났던 스웨디쉬 가족들의 아이들이 그 선물 꾸러미로 추정되는 선물들을 하나씩 골라와, 포장 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설마 선물들까지 공짜로 주겠어? 우연히 포장지가 같은 것일 뿐이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 나라, 정말이었다. 그리고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아버지 또래로 보이는 남자 두 분이 식사를 마칠 때 쯤 각자 선물 하나씩과 박스에 담아온 음식이 담긴 봉투 하나를 들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위한 데코레이션도, 가짜 선물도 아닌 그곳을 찾은 누군가를 위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

사실 아침부터 봤던 그 스웨디쉬 가족들은 어쩌면, 아주 어쩌면 크리스마스를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보내기에는 어려운 가정일수도 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번번하게 줄 수 없는 형편의 가정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추정이다.) 하지만, 어느 개인 카페의 크리스마스 정신이 담긴 진심어린 선물들이, 그 가정의 재정적으로 부족한 크리스마스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예쁘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아버지 또래로 보이던 남자 두 분이 챙긴 선물도 혹시나 그들의 아들 혹은 딸에게 줄 미처 준비하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지는 않을까, 나 혼자만의 상상에 빠졌다.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따뜻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나는 그 순간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이 나라의 평등을 추구하는 문화와, 진심을 다해 나눌 줄 아는 크리스마스 정신에 말이다. 그렇게 또 한 번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꼭 참고, 정말로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많은 감동과 행복을 예고치 않게 받고나니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서 또 감성이 터지고야 말았다. 이 행복한 문화, 사랑이 실천되는 이들의 삶의 방식을 경험했다는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삶의 방식을 경험해본 사람으로, 정말 스웨덴의 1/10000 이라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모두가 그들의 삶을 제 방식대로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글과 사진으로는 답을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나는 보고 느꼈으니까, 그렇게 하지않으면 컨닝을 한 아이를 보고도 가만히 눈 감아주는 그런 똑같이 나쁜 아이가 될 것만 같아서, 변화시켜야 할 대한민국이 내 앞에 있는데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너무 깊게 생각하다보니, 그 책임감이 굉장히 부담감처럼 느껴져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기분 좋은 부담감이었다. 그 부담감을 떨쳐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친 듯이 노력해보고 싶은, 나중에 실패하더라도 난 이만큼 노력했다고, 스웨덴에게 말해주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으니까.

스웨덴에서의 Christmas Eve, 하루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시 스웨덴," 이라는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너무나도 충분했던 그 시간, 공간, 소리 모두가 행복했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담감으로 어깨가 짓눌렸던, 복합적인 감정들이 공존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정말 힘들 땐, 이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길, 그때의 다짐들이 풍선마냥 날아가지 않게 글로나마 조용히 그 예쁜 풍선들을 끈으로 묶어본다.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를,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선물을 준 돛테할아버지와 같은 스웨덴, 그리고 백혜, 사랑이란 단어, 감정으로 가슴을 꽉 채워준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 고마워 스웨덴♥

## 11. Interview Swedish politician in Växjö kommun

스웨덴 교환학생을 오기 전, 하고자 했던 여러 목표들 중 하나는 "스웨덴 정치인 만나기/인터뷰하기"였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지역 코뮌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 의원을 이메일을 통해 연락했고 많은 사전준비를 거쳐 지역 정치인인 Rosengren Oliver를 만나 뵈 수 있었다. 11시 정각이 되어서야 도착해, 리셉션에 있는 분께 Rosengren Oliver를 만나러 왔다고 말씀드리고 그 앞에 앉아 덜덜 떨며 잠시 기다렸다. 긴장감도 잠시, 사무실을 향하는 길에 여기는 어떤 곳이다, 저기는 어떤 곳이다 설명을 해주는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참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벌써부터 받았다.

정말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고, 그것을 토대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몇 가지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1) 1992년생이다. 나보다 딱 한살이 많은 오빠, 정치인이다. 20대 후반의 정치인도 보기 힘든 우리나라를 당연시 생각해서인지 태어나서 그 당시 23살 정치인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백훤코뮌에서도 큰 비중과 예산을 담당하는 노동복지위원회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23살 정치인이 위원회 의장까지 맡다니 정말 존경스러웠다. Mr. Oliver도, 그리고 스웨덴의 정치시스템도.)

2) 2007년에 처음으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한다. 만 15살 때 처음으로 입당했다는 것이다. (난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교과서로 시험공부나 하고 있었겠지?)

3) 그마저도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가입을 하게 된 것이 아닌, Just for fun! 이라고 대답했다. 청소년 시기에 정치에 대한 저마만큼의 관심과 참여욕구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Mr. Oliver가 유별난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최근 화제인 33살의 스웨덴교육부 장관인 구스타프는 11세에 정당에 입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4) Youth organization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청년들을 대표해왔다. 그리고 소속되어있는 스웨덴 중도정당인 Moderate party에는 청년들이 정말 많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5) 궁금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초반이 정치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Q 그렇다면 스웨덴의 시니어 정치인들은 젊은 청년들이 정치하는 것에 대해 순응적인가?

A 물론 확실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만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된다. "60살의 정치인은 16살 학생의 고충을 알 수 없다. 학교시스템, 교육문제 등에 대해 전혀 공감할 수 없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실천이 되고, 현실이 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6) 살아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현장(새로운 정치시스템) : 백훤코뮌에 소속된 정치인만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Mr. Oliver가 속해있는 노동복지위원회에만 100명 이상의 정치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 중, 95%는 Free time politician이라고 한다. 그들은 단지 한 달에 한 번 의원회 회의가 있을 때만 참석을 하고 이외에는 각자의 본업을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회의 참석으로 500kr만의 수입을 얻을 뿐. 그리고 5~10% 이내의 정치인들만이 Full time politician,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속한다고 했다.

정말 흥미로웠다. 살아있는 참여형 민주주의가 아닌가?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라고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잘못되겠는가, 참 대단한 나라다.

7) 스웨덴의 대표 정당인 social democratic쪽이 아닌, more like liberal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정당인 Moderate 정당에 속해있는 그에게 과거 혹은 현재와 다르게 스웨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답했다.

A1. 너무 심한 Housing market 규제 때문에, 집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Need to be making more free!

A2. Labor union의 목소리가 강한 스웨덴, 무조건적인 임금 인상 요구를 통한 업무 중단 등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이들과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 Easy job, less money, 반드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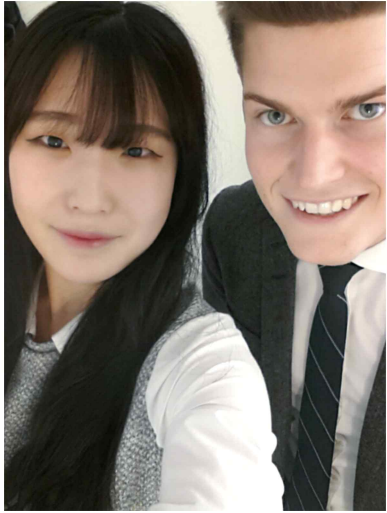
A3.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은 오히려 일을 구하면 받게 되는 월급보다도 높다. Lower welfare benefit or encourage them to search job at the same time, 이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다.

8) 책에서 읽던, 복지국가 스웨덴의 무결점 복지정책들의 시각이 스웨덴 안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느꼈다. 특히, 중도정당에 소속된 Mr. Oliver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무조건 긍정적이고 편협한 사고에서 바라보던 스웨덴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시각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9) 좋은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최고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대답했다. 특히, Good leadership 또한 아주 중요하다고. 강한 리더십으로, 전체 사회를 위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경제는 사회에 있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아껴 쓰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에 있어 국민 탓을 하지 않고, 정치인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하는 Mr. Oliver의 모습이 우리나라와 참 대조되어 씩씩했다.)

10)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Good school system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은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토대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기반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 (Liberal 입장이지만, 스웨덴의 기초는 평등이기에 한편으론 참 부러웠다. 복지국가/자유시장 두 시각을 공존 할 수 있는 것이 모순이 되지 않기에 말이다.)





마냥 좋고, 여운이 너무나도 깊은 1시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장갑을 끼지 않으면 손이 터질 것만 같았던 추운 날씨였지만,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다. 콧노래를 부르진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오늘 쌓은 스웨덴에서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 내가 성장하면서 겪을 성장통에 진통제가 될 수 있기를. 오래오래 선명하게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 12.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스웨덴에서의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과제를 제출하고, 나 홀로 유럽여행도 마쳤다.

8월 24일, 코펜하겐 공항에서 하룻밤을 노숙하며 도착했던 백훤역, 그리고 VIS 친구들의 픽업을 통해 린네우스 대학교를 향하던 차 안에서의 첫 스웨덴과의 만남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와, 진짜 건물들이 하나하나 다 알록달록해! 너무 예쁘다!" "우와 저게 호수야? 진짜 예쁘다, 구름은 왜 이렇게 낮게 있는 것 같지? 점프하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VIS 친구들에게 종알종알 뒤에서 계속 떠들었다. 스웨덴, 그리고 백훤의 첫인상을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곳곳에 모든 것들이 색채감 있는, 구름이 예쁜 곳"이라고 얘기해줄 것이다. 그렇게 시각적으로 나를 사로잡았던 스웨덴과의 첫 만남은 그저 설레고 두근거렸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했다. 이 곳에서 나는 얼마나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 막연했다.

그 막연함 안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보았고, 새로운 것들을 느꼈다. 환상의 나라, 북유럽, 그 중 스웨덴에 난 참 많은 기대를 가진 나는 처음으로 스웨덴의 어두운 모습도 보게 되었다. Willys, COOP, ICA, 그리고 작은 마트들, 구분 없이 모든 마트 입구에는 작은 종이컵을 하나씩 들고 두꺼운 담요와 낡은 점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명씩 있었다. 정말 직업적으로 상주한다는 꽤나 부정적인 시각이 들만큼 모든 입구마다, 한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꽤 나이가 어려 보이던 여자부터, 나이가 꽤 들어보이던 할아버지까지. 너무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추정되는 이들이 마트 앞에서 소위 말하는 구걸을 하였다. 마음이 아팠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국민들의 높은 삶의 질, 행복한 나라라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도 이런 문제는 존재한다는 것을 눈으로 본 순간, 무결점, 환상의 나라 스웨덴이 조금씩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내가 읽은 책들이 스웨덴 복지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다룬 것들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유럽여행을 다니며, 모든 나라에 존재했다. 덴마크, 핀란드부터 런던, 파리, 동유럽까지 말이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일까? 자본주의사회에선 어쩔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일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든다.) 하나의 작은 예시일 뿐이지만, 이외에도 수많은 어두운 모습들을 보았다. 그렇게 스웨덴은 완

벽한 복지국가라는 옛날의 수식어를 조금씩은 내려놓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변화가 필요한' 그런 나라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스웨덴을 한 단어로 표현해야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

변화하고 있는 스웨덴이지만, 그 곳은 다양한 상식들이 움직이고, 새로운 상식들이 행동하는 그런 나라였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러 상식들이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행동되어지고 변화를 만들지 못하지 않는가? 하지만 스웨덴은 그냥 그런 곳이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상식들이 행동을 하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그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나라였다. 평등이라는 기조를 토대로, 정부는 국민의 행복(복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곳이고, 국회의원들은 단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말뿐만이 아닌, 정말 의미 그대로) 비정규직 임시직일 뿐인 일반 국민과 다를 것 없는 특례 없는 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정치뿐만이 아닌, 스웨덴 사람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으니,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과대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웨덴 사람들 한명 한명은 나에게 감동이였다. 그들을 통해 난 참 많은 것을 새로 느끼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백해 호수에서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던 노부부들의 모습들, 유모차를 끌며 운동을 하던 어느 아버지, 휠체어를 타고도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분들, 얼음판에서 아이스하키를 하던 유치원 아이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웃음소리, 대화소리를 엿듣는 것만으로도 난 참 행복했고, 동시에 두려웠다. 아주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삶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내 가족들이 투영되었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고 그렇게 상식적인 행동과 삶이 주는 감동은, 매 순간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고, 매 순간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내가 꿈꾸던 나라가 책이나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실제하는 나라라고. 너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대답해주는 것 같았다.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참 긴 한 학기였다. 매일 매일 새로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 새로운 경험을 찾아하려 노력했기 때문이었을까? 어느 학기보다 참 짝 차고 긴 학기였다. 마냥 궁금했던 복지국가 스웨덴을 직접 보고 느끼며 환상의 나라였던 그 곳은, 꿈의 나라가 되었고, (환상은 현실이 아닌 것이지만, 꿈은 노력하면 이를 수 있는 그런 단어 아닌가. 분명 실현가능한 나라였다. 어느 나라보다도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직관적인 시각을 지닌 그런 나라였으니까.) 나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왜 그동안 나에게는 항상 모질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고 내 마음이 가는대로 나를 가만히 두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보고 싶으면 보고, 정말 그랬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참 많이 노력했다. 나와 단둘이 하는 시간은 참 어색했지만, 가장 나다운 시간들이었다.

참 많이 배우고, 느꼈던 그곳에서의 경험들. 하나 아직도 의문인 것은, 왜 그곳에선 그렇게나 감정적이었을까? 라는 질문. 울컥 울컥, 정말 눈물을 흘리기도 한 순간이 있었고(슬퍼서가 아닌, 알 수 없는 감정들이었다. 감동, 아름다움, 두려움, 책임감 등.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었다.) 같이 동거동락 하던 기숙사 친구들과 헤어질 때는 한명 한명과의 작별에서 매번 울음을 터트렸다. 작별에 많이 익숙해진 나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매번 그렇게 울음을 삼키지 못했던 나는, 그저 아직 많이 어려서일까? 아니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여운이 깊다. 유럽여행을 다니며 보았던 어느 나라보다, 스웨덴은 나에게 가장 진하고 가장 가슴 먹먹한 그런 나라다. 다시 그 때,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날을 기약할 수 없기에 더

여운이 진한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화 속 나라, 그렇지만 절대 비현실적인 환상속의 나라가 아닌 그 곳이 나는 앞으로 많이 그리울 것 같다. 자꾸 나약해지고, 현실과 타협하려 하는 순간마다, 작게나마 이 글들을 꺼내보며 나를 다독이고 싶다. 네가 봤던 세상들과 내가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꺼내보라고 말이다.

안녕 스웨덴, 정말 너무 고마웠어. 가장 아름다운 나이라는 23살을 가장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보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 너를 보고 다짐한 수많은 꿈들과 생각들, 나중에 너에게 다시 찾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게! 나에게 가장 큰 용기를 준, 넌 할 수 있다고 매 순간 어깨를 토닥여주던 너를 잊지 않을게, 고마워!

상식이 행동하는 나라, 너무나 사랑스러운 스웨덴아, 진짜 많이 보고싶을거야. Vi ses!